

한마음 한몸

ONE-BODY ONE-SPIRIT MAGAZINE

2010 Winter Vol.08

www.obos.or.kr

SPECIAL STORY 01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0 사랑나눔 결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0 사업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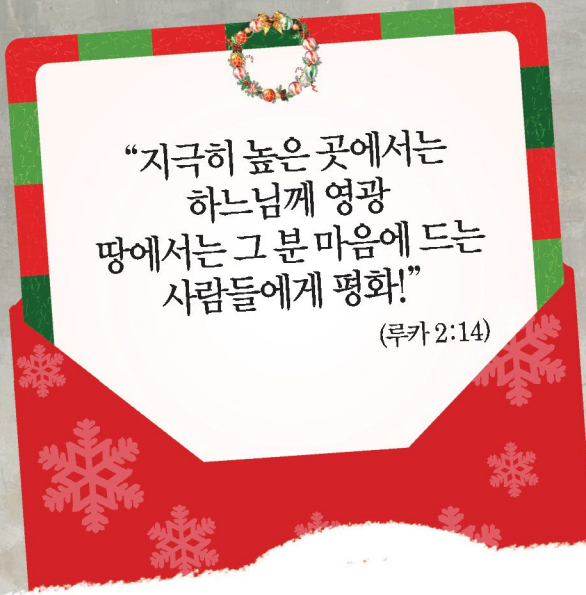
SPECIAL STORY 02

키다리아저씨가 되어 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씨앗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모집 사업 1년 결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 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루카 2:14)

메리크리스마스! 희망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2010년 한 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사랑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동안 보내주신 후원과 사랑나눔은 소외되고 빈곤과 질병 속에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지구촌 곳곳을 보살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인 나눔과 후원을 통한 이웃사랑의 뜻이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지구촌 이웃에게 온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1년 한 해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2010. 12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임직원 일동



www.obos.or.kr
2010 Winter Vol.08

02 여는 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04 Special Story 01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0 사랑나눔 결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0 사업결산 - 생명나눔운동, 자살예방, 국제협력

08 Special Story 02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 - 키다리아저씨가 되어 주세요

10 월드 On Air

아이티 중장기 재건사업 확정

12 현장속으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퍼포먼스 펼쳐

14 공감, 나누는 세상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캠페인 - 산타가 되어주세요

15 고마워요 사랑해요

제18회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개최

16 생명을 살리는 씨앗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모집 사업 1년 결산

20 OBOS NEWS

표지이야기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백혈병·난치병으로 아파하는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2006년부터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사진은 백혈병·난치병 어린이에게 선물을 전하는 본부 임직원들 모습.



한마음한몸 발행일 2010년 12월 15일 통권 제 8호 **발행인** 김용태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명동길 62 (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413호
편집디자인 굿모닝컴 글 · 사진 기획홍보팀 **출력 · 인쇄** 프로아트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 02.774.3488 | obos@catholic.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 (<http://www.obos.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0 사랑나눔 결산

1월



- 2010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확정
- 미얀마, 부룬디 등 총 87개국 17개 사업 지원
-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가톨릭장기증전국 네트워크 실무자회의(1/15)
- 캄보디아 한정방문(1/23~29)
- 국제청년 자원활동 「피앗누리」 9기 파견
(1/27~2/10, 캄보디아)
- 아이티 대지진 긴급구호금 6만 달러 지원
(1/28)

2월



- 아이티 대지진 긴급구호금 2억 5천만 원
(전주교 서울대교구 2차 한금) 전달(2/2)
- 가톨릭장기증전국네트워크 공식 출범(2/16)
- 故 감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 추모행사
- 범국민 장기증캠페인 개최(2/20)
- 아이티 대지진 참사 긴급 구호금 22만 달러
추가지원(2/22)
- 네덜란드 한정방문(2/22~27)
-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모집기관으로
8년연속 선정 보건복지부)

3월



- 한국국제협력단 민간단체지원사업 선정
- 몽골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 권리와 자립에 기반한 자치정예인자력화
프로그램
- 미얀마 한정방문(3/14~20)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개소(3/22)
- 한국 NGO 해외봉사단 파견
(3/24, 헌전·박희란 단원, 몽골)
- 칠레지진 긴급구호금 3억 6,147만 원
지원(3/30)

4월



- 칠레지진 긴급구호금 5,639만 원 지원(4/2)
- 제주교구, 장기기증신청서 1,552장 전달
(4/15)
- 한국장기증네트워크 단체장 간담회(4/23)
- 아이티 지진피해 한정방문(4/29~5/7)
- 가톨릭장기증전국네트워크 시순캠페인 전개
(222개 본당 전국 13개 교구, 11,000여 명 참여)

5월



- 한미한금 봉헌의 달
- 100번째 조혈모세포기증자 탄생 (조용진 씨)
- 대학생시목부와 함께하는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모집캠페인
-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 및
한철 릴레이캠페인
- 태교음악회 및 임신부 축복미사(명동성당),
공여제대혈기증캠페인(5/18)

6월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청소년생명학교(자살예방교육) 운영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창립 22주년 기념식 및
자살예방 거리캠페인(6/6 서울 명동)
- 해피로그 개설(6/7)
(<http://happylog.naver.com/obos>)
- 영화배우 최은희, 본부 장기기증홍보대사
위촉(6/14)
- 아프리카 한정방문 실시(6/23~7/8)

Special Story 01

7월



-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단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몽골편" 방송(7/11, 18, 25)
- 국제청년 자원활동 「따앗누리」 10기 파견(7/14~29, 몽골 중토투시)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 전화상담봉사자 교육 및 개강미사(7/21)
- 사이버상담 봉사자 교육(7/5~9)
- 2010 장기기증 및 이식홍보사업 가톨릭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 지원
- 인천, 광주대교구 등 총 7개교구 6천만 원 지원

8월



- 파키스탄 한장방문(8/4~13)
- 제2회 한국청년대회, 생명캠페인(8/12~14, 임진각 평화누리)
- 캄보디아 한장방문(8/21~29)
- 파키스탄 대홍수 긴급구호금 3만 달러 지원(8/30)

9월



- 한미헌금 봉헌의 달
- 2차 아이티 한장방문(9/8~17)
-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 출범(9/11,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사이버상담실 개설(<http://www.3079.or.kr>)
- 나눔의 전화창립 27주년 기념식 및 미사 개최

10월



- 대전성모병원 헌혈증서 1,000장 전달(10/8)
- 제2대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장 배한순 수녀 취임(10/1)
- 2010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10/17)
- 한안, 장기, 조직, 조혈모세포
- 백혈병 난치병 환자지원사업 총 10억 원(125명 환자) 지원 돌피(2004~2010. 10월)

11월



- 아이티 장기재건사업 20만 달러 지원 - 아이티 11개 학교 재건축(11/17)
- 2010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사업 3,164명 모집 달성
- 서울G20 정상회의 관련, 지구촌반공토크 미디어 퍼포먼스 전개(11/10)
- 캄보디아 카리티어스 파트너 미팅 참석 및 한장방문(11/23~12/1)
- 2010 장기기증희망자 28,294명 모집

12월



- 연말연시 나눔 캠페인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세요' 전개
- 2011 한마음한몸기금지원사업 확성
- 아이티 장기재건사업 13만 달러 추가지원(아이티 11개 학교 재건축)
- 르완다 PCM 필드리서치 참가(12/11~20)
- 백혈병 난치병 환자 지원을 위한 '산타가 되어주세요' 전개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 전화상담봉사자 교육 수료미사(12/22)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0 사업결산

[2010 생명나눔운동 사업보고]

1. 장기기증희망자 모집사업 28,294명

작년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시 각막기증을 계기로 전 교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불러 일으켰고 올해도 28,294명이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회적으로 장기기증 및 생명나눔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주교회의의 생명운동본부 산하에 가톨릭 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가톨릭교회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모집기관이 아닌 가톨릭교회의 대표적 운동단체로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정상화 시킬 수 있는 활동영역을 개발, 체계적인 활동의 발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단체들과 한국장기기증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법률개정 요청 등 적극적인 정책제언 활동을 실시하여 사회적인 운동단체로서의 입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본부는 더욱 성숙된 자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생명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장서겠습니다.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희망의 씨앗입니다.”



2.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사업 3,164명



본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기관으로 8년 연속 선정되어 2010년 한 해 동안 전국 캠페인을 펼친 결과 총 3,164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8년 전체 합계: 25,790명)했습니다. 본부의 모집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129명의 환우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나눔이 생명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환우 지원사업 (2009.12/1~2010.11/30)

본부는 2010년 한 해 동안 백혈병·난치병 환아 24명에게 총 2억 2백만 원과 뇌사자 장기이식 환우 4명에게 총 3천 9백만 원을 지원하며 희망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탄절이 되면 백혈병·난치병 환아 지원사업과 연계된 병원, 전국 가톨릭 관련 산하 19개 병원 소아병동 입원 환아 1,400명에게 4,000만 원 상당의 성탄선물을 전달하는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를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습니다.





[2010 자살예방 사업보고]

본부는 2010년 3월 생명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를 설립, 자살예방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살충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1599-생명친구(3079)'를 통해 전화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용자가 현재 5,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및 청장년층의 인터넷 이용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홈페이지 (<http://www.3079.or.kr>)를 개설하여 자살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함께 사이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생명학교를 운영, 5개 중·고교 2,8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서는 2011년에도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위기상담 및 청소년자살예방교육,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0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인도적 구호]



본부 국제협력부는 미얀마, 캄보디아, 몽골, 네팔, 파키스탄, 부룬디, 케냐 등 9개국 20개 프로젝트 총 12억 4,372만 6,197원을 전 지구적 빈곤퇴치와 사회정의의 증진을 위해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 및 장기 재건사업, 칠레 지진, 파키스탄 홍수 피해, 과테말라 폭풍 및 화산폭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인도적 구호를 위해 총 15억 5,489만 8,148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신 협력기관들과 특별히 주도적으로 참여해주신 현지 지역주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본부를 적극 지지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세요

지구촌 청소년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학용품, 교복, 장학금을 지원하여

기적을 만드는 사랑의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빈곤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마법이 지구촌 곳곳에 학교를 세웁니다.

2010년 12월 22일, 서울 명동. 나눔으로 만드는 마법 !

성탄의 기쁨과 나눔의 행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적 같은 무대가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펼쳐집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바로 마법사입니다.

일시 2010년 12월 22일 (수) 오전 11시~오후 5시

장소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 무대와 거리

문의 02-727-2267

※ 자세한 내용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dbos.or.kr>) 에서 확인하세요. 본 캠페인은 2010.12.01~2011.1.31
까지 두 달간 진행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연말연시 나눔캠페인으로 현장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후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Special Story 02

지구촌 빈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2010년 12월, 여러분이 마법사가 됩니다.

필리핀 마닐라 빈민촌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쓰레기통에서 하루 끼니를 때우고, 콩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소총을 메고 정글을 헤맬니다. 브라질 빈민가 어린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구걸에 나서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은 에이즈로 부모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절대 빈곤 속에 미소와 희망을 빼앗긴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지구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학교를 건설하고, 학용품, 교복, 장학금 등을 지원합니다. 아이티 '장기 재건을 위한 11개 학교 재건축', 미얀마 '태양열에너지시스템 지원을 통한 안정된 전기 공급으로 빈민지역 청소년에게 기초학습, 컴퓨터 및 기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 빈곤한 청소년을 위한 기숙교육센터 운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학비, 학용품 및 급식 지원', 캄보디아 '프레이벵 7개 마을의 유치원 건축을 통해 아동교육과 급식 지원', 부룬디 '나마보코 초등학교 건축을 통한 아동교육과 물탱크 건축 및 위생개선', 몽골 '울란바타르 지역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공부방, 도서관, 스카우트, 지구시민교육, 장학금 등 지원',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교복, 학용품 지원' 등 세계 곳곳에서 청소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으로 황량한 벌판에 샘물이 솟아나고 까만 밤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또 쓰러져가던 집이 세워집니다. 지진이 쓸고 간 마을에 다시 학교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거리에서 구걸하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책을 읽고 학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마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을 만드는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순간 여러분이 지구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나눔의 마법사"가 되어주세요. ⊕

1. 아프리카 부룬디의 나마보코초등학교 아이들은 학교길에 무거운 물통을 이고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맨발로 돌길을 1시간이 넘게 걸어 다닙니다. 이들에게 학교란 교육 그 이상의 것입니다.
2. 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프리카 부룬디의 나마보코초등학교 물탱크 건축 및 위생시설 개선 사업 현장



연말연시 나눔캠페인 - 지구촌 빈곤 청소년 돕기 계좌 안내

- **계좌** 우리은행 1005-684-077777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자원개발부 02-727-2267



1

본부, 아이티 재건 중장기 지원사업 확정

33만 달러 지원, 11개 학교 건축키로
보건 · 의료 · 건강 등 사업 지속적으로 지원예정

1. 청소년을 위한 임시천막학교, 이 모든 참화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들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2. 아이티 지진 이후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주교좌성당 모습



2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지난 1월 사상 최악의 지진피해를 입은 아이티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합니다. 본부는 아이티의 재건을 위한 중장기 지원 사업을 확정,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 11개 학교의 재건축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장기재건사업 지원은 지난 10월 22일 국제카리타스에서 발행한 긴급요청서(EA 16/2010 Haiti Caritas Consolidated Emergency Appeal)에 따른 것입니다.

국제카리타스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보낸 긴급요청서를 통해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와 자크멜 등의 지역에 주거, 교육, 건강·영양, 식수 등의 지원과 자활 프로그램은 지속돼야 하는 상황이며, 2010년 5월 1일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이어지고 이 사업에 따른 최종보고서와 감사 결과는 2011년말까지 국제카리타스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과 9월 아이티를 방문한 본부 국제협력부 김대민 차장은 “아이티의 피해가 너무 커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고 이들이 자활에 성공하는데 10년 혹은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국교회 신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가 아이티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함께 앞으로 아이티의 보건, 의료, 건강 등의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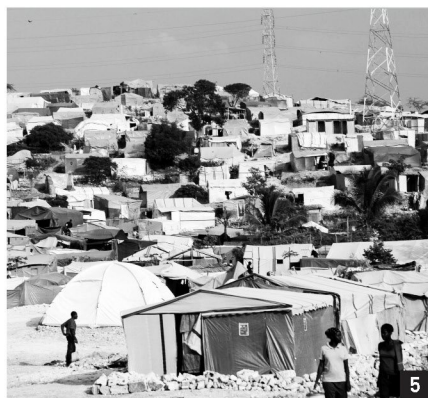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아이티 강진 지원현황 중간보고

1월 28일	아이티 1차 긴급구호금 6만 달러 지원
2월 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2차헌금 2억 5천만원 전달
2월 22일	아이티 긴급구호금 22만 달러 추가 지원
4월 29일~5월 7일	초기 긴급구호 지원 모니터링 및 장기재건사업 지원방안을 위한 1차 현장 방문
9월 8일 ~ 9월 17일	장기재건사업 현장조사 및 지원 논의를 위한 2차 현장방문
11월 12일	아이티 재건을 위한 중장기 지원사업 확정
11월 17일	아이티 재건복구사업(11개 학교 재건축)을 위한 1차 20만 달러 지원
12월	아이티 재건복구사업(11개 학교 재건축)을 위한 2차 13만 달러 지원

아이티 재건을 위한 후원계좌

- **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45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자원개발부 02-727-2267

3. 지진으로 무너진 후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대통령궁
4. 지진 잔해를 치우고 있는 아이티 어린아이
5. 포르토프랭스 델마 33번지 임시캠프 현장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퍼포먼스 펼쳐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과 공동으로 G20정상들이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11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세계 정상들이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퍼포먼스는 태권도복을 입은 G20 회의 참가국 정상들 앞에서 의적 홍길동이 나와 '빈곤'이라고 적힌 송판 격과 시범을 통해 어떻게 빈곤을 퇴치해야 하는지 한 수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영국의 의적 로빈후드가 홍길동과 함께 피켓을 들고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가난한 이들이 아닌 거대 은행에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고 세금을 부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옥스팜은 퍼포먼스를 통해 “이번 G20 의장국인 한국이 빈곤국의 개발을 의제로 채택했으며, G20 지도자들은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려면 거대 은행에 금융거래세(로빈후드세)를 부과해 이것으로 빈곤국의 재정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난한 나라는 G20 회의에서 발언권이 없다”고 지적한 후,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절대빈곤 속에 살고 있고, 10억 명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부유한 나라들이 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대표적 의적인 홍길동과 로빈후드가 G20 정상들의 마스크를 한 사람들 앞에서 “빈곤”이라고 적힌 팻말을 부수고, “G20 정상들은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친 이날의 퍼포먼스는 국내 주요언론사 사진기자 및 AP, AFP, 로이터통신,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기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 세계로 보도되었습니다. ⊕

옥스팜(Oxfam, 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

1942년, 영국 옥스퍼드의 주민들이 나치 치하에서 고생하는 그리스인을 구호할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이후 활동 폭을 넓혀 전쟁 난민 구호에 앞장서면서 현재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퀘벡, 스페인, 영국, 미국 등 17개의 회원국을 연계하는 국제 비정부 단체입니다.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캠페인



“와! 산타할아버지다”

독한 항암제 때문에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김없이 빠지고 빈혈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던 다은이도, 평소 주사 맞기 싫어 눈이 퉁퉁 붓도록 울던 민현이도 오늘날만큼은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을 받고 함박웃음을 짓습니다.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다은이, 민현이와 같이 백혈병·난치병으로 아파하는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나눔캠페인입니다. 올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이 사랑의 산타가 되어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물해 주세요.

산타가 되는 방법

1단계: 1인 1환아 산타되기 후원금 3만원 입금

2단계: 전국 19개 병원 소아병동 1,400여 명의 환아에게 산타선물 전달, 국립암센터에서 투병중인 환아들을 대상으로 산타행사 개최

“산타가 되어주세요” 후원계좌

- 1인 1환아 산타되기 3만원(담요+탁상달력+카드)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27-2293

제18회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개최

1년간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한 기증자, 가족 등 103명에 감사패 전달

연변 조선족 출신으로 지난 4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갑작스럽게 뇌사상태에 빠진 김금옥(카타리나, 53)씨는 자신의 간과 신장을 기증해 다른 세 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각막과 인체조직도 기증해 질병의 고통 속에 있던 환자 수십 명에게 새 삶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배성현(요한 사도, 15)군도 각막과 장기 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안겨주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김현여(루치아, 76) 할머니는 각막 기증으로 두 사람에게 빛을 선물했고, 박성균(알베르토)씨는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꺼져가는 어린 생명을 살렸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난 10월 17일,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제18회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서울성모병원 장기이식센터 등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며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한 장기기증자들의 사랑 나눔 정신을 기리기 위한 장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각막과 장기,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72명의 기증자 가족과 조혈모세포 공여자 31명 등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10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장기 기증 서약자와 가족들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생명나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증자를 위한 기념미사를 주례한 조규만 주교(서울대교구 서서울지역 교구장 대리)는 강론에서 “육신의 부활은 단순한 세포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인격적 관계를 맺어온 한 인간의 삶 자체를 투영한 부활을 뜻한다”며 “장기기증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한 것 또한 하느님 앞에 남게 될 것이며 하느님께서 더 큰 사랑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한편 미사에 앞서 펼쳐진 생명콘서트에서는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과 수원 안젤루스 만돌린 앙상블, 생활성가 가수 신상옥(안드레아)씨 등이 출연해 노래와 연주를 선사했습니다.

2010년 12월 현재 국내 전체 장기기증희망자는 70만 3,175명,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장기기증희망자는 9만 3,594명, 국내 전체 장기기증 희망자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1.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공연

2. 2010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은 장기 기증 가족과 조혈모세포 공여자들이 서서울지역 교구장대리 조규만 주교와 본부장 김용태 신부,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동익 신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우리의 나눔이 생명을 살립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2003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약 25,790명의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를 모집하였고, 약 129명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이 필요한 이유

조혈모세포는 '피를 만드는 어머니세포'라는 뜻으로 골수나 말초혈, 체대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포이다. 골수란 우리 몸의 뼈 속에 있는 피를 만드는 조혈조직으로 혈액 속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이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골수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혈액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백혈병과 같은 난치성 혈액종양에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난치병 환자들도 항암제나 방사선 등으로 자신의 병든 골수를 모두 소멸시킨 후 건강한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공급 받으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2003년~2010년 기증희망자 현황

연도	기증희망자수
2003	2,000
2004	2,000
2005	2,500
2006	4,500
2007	4,700
2008	4,100
2009	3,000
2010	2,990
총계	25,790

2003년~2010년 실제 기증자 현황

연도	기증방법		실 기증자수
	골수	말초혈	
2003	-	-	0
2004	3	-	3
2005	4	1	5
2006	4	3	7
2007	8	15	23
2008	8	28	36
2009	6	18	24
2010	1	30	31
총계	34	95	129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조혈모세포이식을 필요로 하며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가 매년 2~3천여 명에 달합니다.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순수하게 생명을 나눠주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

KONOS 통계연보

※ 단위: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이식대기자	2,665	3,168	3,073	3,426	2,293

2010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모집 결과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벌인 1년 동안의 노력

본부는 총 33회의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과 개별방문을 통해 2010년도 계획에 따른 총 2,990명 모집보다 많은 총 3,164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했다. (2010. 11.25 기준 집계)

1. 본당 및 교구행사 : 12회 - 453명 모집

역촌동성당 : 37명 / 수서동성당 : 20명 / 일산 마두동성당 : 33명 / 서교동성당 : 69명 / 의정부 신곡 1동성당 : 16명 / 홍은동성당 : 14명 / 도곡동성당 : 37명 / 광주 염주동성당 : 30명 / 제1회 생명대회 : 52명 / 제2회 전국가톨릭청년대회 : 112명 / 띠앗누리 10기(물골) : 8명 / 상암월드컵평화의광장(2회) : 25명

2. 대학교 및 기관단체 : 21회 - 1,637명 모집

수원가톨릭대학교 : 68명 / 부산가톨릭대학교 : 62명 / 상명대학교(2회) : 168명 / 성균관대학교 : 82명 / 전남대학교 : 24명 / 경원대학교 : 176명 / 인천가톨릭대학교 : 33명 / 서울시립대학교 : 99명 / 세종대학교 : 68명 / 한밭대학교(2회) : 114명 /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 78명 / 성신여자대학교 : 59명 / 이화여자대학교 : 104명 / 가톨릭대학교 : 100명 / 덕성여자대학교(2회) : 152명 / 고려대학교 : 182명 / 성결대학교 23명 / 목원대학교 : 45명

3. 개별 방문 : 480명 모집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 462명 / 본부 방문 : 18명



Thanks to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주신 129분의 기증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배명식	한진호	김다미	정선미	김은호	공성진	조수환	이응현	차준용	김범운	허원준	조용진	전경미
송명수	박지훈	손정규	김재영	전용택	서주령	박주균	박우람	유충현	강규원	이 샘	김상우	오슬기
권영랑	김혜리	서수용	전용택	하성진	이승철	정석환	현지연	방윤승	권준수	박성호	이매실	양창우
김영호	오진택	최경선	김수정	김덕용	이동명	박지은	이미현	홍유선	이수훈	이종현	진일중	이수미
김부섭	문주영	이명은	최용안	이재훈	전유성	최소영	문행균	김진수	박범석	이재원	염윤식	김대환
황치승	이재열	최 일	한신애	홍기연	박선훈	남태현	이태석	김규현	신종현	이지연	최명주	김숙현
김재원	박화나핀	오상택	이규삼	김경화	방극희	고병현	최우식	서영삼	김태형	김이은	이미선	박인수
김형진	이병찬	오대양	윤관영	이진혁	김재혁	최재혁	김태훈	이재권	이원섭	문경록	길나영	신종호
정성훈	김영세	조영미	박길수	홍은경	나동균	김태준	길나영	강금희	박서영	이재욱	김정란	신세인
윤만규	김영남	이성일	곽지원	김은혜	강슬기	이동훈	서민수	김 한	박성균	서근수	신국남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에 관한 문의

신청 대상 나이 만 18세~4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녀

조혈모세포 기증절차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신청서 작성, 3ml 혈액 채혈 후 유전자 검사 및 정보등록→환자와 기증희망자의 유전자형 일치→기증의사 재확인→유전자형 재검사→기증자 건강검진→입원, 조혈모세포 채취

신청 장소 서울시 중구 명동길 62 가톨릭회관 413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접수 시간 개인의 경우 -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오전 9시30분~오후 7시30분(연중무휴, 설날과 추석은 제외)
단체의 경우 - 사전에 전화로 협의 후 출장 신청

신청 문의전화 생명운동부 02-727-2268

- 조혈모세포 수혜자 수기

아픔을 이겨내며

글 ● 조혈모세포 수혜자 임종필

건강하던 내가 감기에 걸렸다!

회사의 확장 이전으로 인해 전보다 많아진 일과 스트레스, 계속되는 휴일근무와 야간작업으로 체력은 저하되고, 심한 고열과 두통을 동반한 감기에도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심해지는 두통을 참을 수 없어 처음으로 병원에 들러 감기 주사와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주사를 맞은 자리에 많은 혈흔과 멍 자국이 생겨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았고 심한 피로감으로 인한 간 기능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불길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대학병원 혈액 내과에서 검사를 하고 얼마 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았습니다. 확진은 아니지만 백혈병 소견이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텅 빈 듯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혈액 주사와 골수 검사를 비롯한 수많은 검사들... 40도를 넘나드는 고열과 심한 두통으로 눈뜯 힘도 없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무균실에 있으면서 기침을 동반한 폐렴과 고열, 환각 증세, 몸에 퍼진 붉은 반점과 두눈의 혈관 파열, 곰팡이 균으로 인한 폐렴은 무균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두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지만, 나 스스로는 이 정도는 금방 이겨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나자 기침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고 50여일 만에 1차 치료를 마치고 퇴원 하는 날, 신선한 공기와 따뜻한 햇살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했습니다.

퇴원을 한 기쁨도 잠시, 1차 치료를 받은 것으로 모든 치료가 끝난 것으로 착각한 나는 이후 치료의 어려움에 겁이 났습니



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 고통과 맞서야 했습니다. 3주간의 체력보강과 휴식을 마치고 2차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을 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구토를 참아가며 조금이나마 먹던 음식도 무균식을 접하면 정말이지 한 손가락도 먹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체력 때문에 매 끼니마다 나오는 조금의 밥과 고구마 1개 그리고 음료수 1개로 10여 일을 버텼고, 백혈구가 2000개 될 때까지를 기다리며 하루라도 빨리 감옥 같은 무균실에서 탈출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하루빨리 이식을 하지 않으면 1년을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나의 경우에는 생존을 위해 타인이식이 안되면 자가이식이라도 추워지기 전에 빨리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골수를 찾는 기다림에 지쳐 절망하고 있을 즈음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와 같은 유전자형의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를 찾은 것입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이름 모를 그분께서 기증 결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이 내려진 게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20일 후의 이식을 위해 산책도 많이 하고 체력도 키웠습니다. 반드시 새 세상을 살 것을 기대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이식을 위해 항암치료와 전신 방사선치료를 받고 드디어 이식하는 날, 가족들은 초조함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나 역시 의연하게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심박수의 변화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여러 의료진의 응원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이식을 받았고 의료진의 정성으로 28일 만에 무균실에서 나왔습니다. 한 달 내내 무균실에서 먹은 것이라곤 영양주사 뿐이었고, 덕분에 71kg이던 체중은 57kg의 날씬해진 몸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한지 7개월이 지나며 예전처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회사에 복귀를 했지만, 많이 약해진 체력과 변하지 않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회사와 가족의 걱정 속에 복귀 1년 만에 모든 일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나를 찾기 위해 욕심을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생애 처음 다닌 아름다운 산과 여행지는 나를 찾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행도 많이 하고 취미생활도 하며 자낸 2년이 삶의 활력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힘든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우 여러분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아픔도 이겨낼

수 있나 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항상 웃고 있던 지를 '미소쟁이 아저씨'라 불러주던 표현이 말해주듯 웃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큰 힘이었습니다. 또 항상 웃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쉬위 보이지만 정말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나는 소중하니까 나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힘내시고 모두들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예쁜 나의 아이들에게 건강할 아빠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신 기증자분과 새 삶을 살게 해주신 모든 의료진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늘 보다 더 건강한 햇살이 나를 맞아해 줄 것입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자 수기

왜 하필 저 입니까

글 ● 조혈모세포 기증자 박성균(알베르토)

2008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 성당에서 치료를 위해 타인의 조혈모세포를 구하고 있다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미사중에 들었습니다. 사랑은 실천이라는데 명색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남들 보란 듯이 좋은 일을 해본 적도 없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끔하며 피 조금 뽑아주고 신청서에 몇 자 적은 것으로 남들은 쉽게 못하는 선행의 끝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주님의 진정한 이들로 거듭난 것이라 여겼습니다. 1년이 지나고 또 한번의 무더위가 왔다가며 계절이 바뀔 즈음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듣자하니 처음 들어보는 무슨 은행인지 협회라는데, 그래서 사기 전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이 다하여 죽기 전에는 연락이 오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그래서 1년 전 일을 삼국시대의 일처럼 잊고 있었던 그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일주일 뒤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 그때까지 생각해 보시고 기증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가볍게 받았던 전화를 내려놓으며 매일 들던 10Kg 이량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연락이 안 올 수도 있다더니,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싶으면서 진짜 사기 당한 것 같구나 싶었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내가 간단히 싫다고만 하면 되는데 왜 고민을 할까 싶었습니

다.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도를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해답과 길을 알려 주셨고 이미 모든 준비를 해 두시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하던 중 불현듯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고자 하는 사람의 도움을 거절한다면, 나는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또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자격이 있을까? 나에게 이렇게 건강한 신체를 주시고, 평생 안을 수도 있던 연락이 내게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라고 말씀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에게 있어 조혈모세포 기증은 누군가의 도움 요청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주님의 말씀이자 소명이었던 것입니다. 뜻을 알고 길을 알았으니 가칠 것이 없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뒤 누군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골수 빼주고 얼마 받았어요?"

"그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골수를 빼주면서 누군지 모르는 남의 생명을 살리는데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인간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붙일 수 없는 거라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예요" 대단한 믿음의 실천이라며 시간방을 떨며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신청서'를 작성했던 내게 주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해주시며 나를 크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 하필 저였는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국제협력

2010년 시민단체 해외연수 참가

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가 지난 11월29일~12월3일까지 4박5일의 일정으로 일본에서 진행된 시민단체 해외연수에 참가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특임장관실에서 주최한 이번 연수는 일본 의회 중의원(NGO 전문가) 강연 및 일본 정부의 NPO·NGO 지원제도, 일본의 도쿄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장 방문

국제협력부는 지난 11월23일~12월1일까지 캄보디아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캄보디아 카리타스와 협력하는 전세계 자원단체들이 모여 더욱 발전적인 파트너십 확대를 논의하는 '캄보디아 카리타스 파트너 회의'에 참석하고, 「띠앗누리」의 현지 활동 장소를 답사하였습니다.

「띠앗누리」 11기 선발 및 파견



마음을 열면 지구촌 이웃들의 희망이 보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세계 속의 한 형제로서 지구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캄보디아 주민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문화를 교류하고 지구촌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는 국제청년자원활동 「띠앗누리」 11기 1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011년1월4일~18일까지 14박15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반티프리업 장애인 기술학교 및 캄땡땡 캄땡고 마을에서 진행되는 이번 자원활동은 캄땡고 마을 개발사업 지원 및 관련 작업과 문화교류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주민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한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2010 지구촌빈곤퇴치 캠페인 전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난 10월17일 '지구촌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재)가톨릭청소년회 등이 주관한 제6회 청소년 축제에 참가하여 '2010 지구촌빈곤퇴치캠페인'을 펼쳤습니다. 2000년 9월 UN본부에서는 10월17일을 '지구촌빈곤퇴치의 날'로 정하고, 191개 UN회원국들이 빈곤퇴치, 보건 및 교육 개선, 양성평등, 환경보호 등 8가지 목표(새천년 개발목표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에 따른 각각의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이날 캠페인에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은 본부가 준비한 MDGs 인증샷 찍기, 희망의 풍선 만들기, 손도장 찍기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MDGs를 이해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생명운동

영국 BBC방송, 자살예방사업 인터뷰



11월 9일(화)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BBC방송이 본부를 방문,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의 취재차 방한중인 BBC방송 팀은 한국의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1위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고 취재하던 중 본부에서 추진중인 자살예방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부를 찾아와 인터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날 BBC방송의 유명 리포터인 MISHAL HUSAIN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방송은 11월 10일(수) 저녁 10시(한국시간) 'BBC 월드뉴스'를 통하여 전 세계에 방송 되었습니다.

**본부 사무국장 신부,
평화방송 'PBC특강' 통해 자살예방 강의**



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가 지난 11월 9일 평화방송 "PBC특강"에 출연하였습니다. 평화방송 "PBC 특강"은 교회 안팎에서 행해지는 각종 신앙, 일반 강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50분 방송)으로서, 금번 방송에 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가 출연하여 요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문제와 관련하여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자살의 원인과 대책>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본부 생명운동부장,
제5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로 선정**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운동부 윤경중 부장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5회 '생명의 신비상' 활동분야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2월5일 제3회 생명수호주일에 수상자로 발표된 윤경중 부장은 장기기증,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모집, 백혈병·난치병 환자 지원, 자살예방사업 등 생명나눔운동 확산을 위해 헌신해 온 생명운동 활동가로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원봉사자 모임 개최**



본부는 지난 10/26(화)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자원봉사자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에 뜻을 함께하는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모임은 자원봉사 관련 영상물 시청을 시작으로 미사 봉헌, 2011년도 자원봉사 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는 강론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여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 사랑을 이제 가정과 본당, 사회공동체에서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우리의 자원봉사는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듯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봉사여야 한다며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봉사의 길, 사랑의 길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며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신사동성베드로성당,
100원 모으기 캠페인**

지난 11/6(토)~7(일) 양일간 천주교 서울대교구 신사동성베드로성당(주임 이승주 신부)에서 '하루 100원 모으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틀 동안의 나눔을 통해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에 192명의 신자분들이 나눔의 아름다움을 생활실천으로 함께 하고자 동참해 주셨고 50명의 신자분들이 장기기증에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신사동성베드로성당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귀한 마음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곳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신학생,
지구촌빈곤퇴치 기금 전달**

지난 11/17(수),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신학생들이 지난 1년간 모은 봉헌금을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기금으로 전달해주셨습니다. 가톨릭대학교(학장 최기섭 신부) 성신교정 신학생들은 매년 주일미사, 특별헌금 등을 통해 1년간 모은 봉헌금을 빈곤과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웃들을 위한 성금으로 전달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전달처 중 한 곳으로 본부를 선정해 성금 90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신학생 여러분이 전달해주신 기금은 본부 지원사업국인 캄보디아의 캄땡고 유치원 어린이 120여명을 대상으로 한 교복과 학용품구입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왕십리성당 중·고등부 학생들,
지구촌빈곤퇴치 성금 전달**

지난 11/18(목), 천주교 서울대교구 왕십리성당(주임 용하성 신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초와 탈취제를 직접 만들어 본당 신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수익금 200,150원을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해 전해주셨습니다. 지구촌 빈곤현실에 대한 이해와 지구촌 이웃들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통해 모아진 이 귀한 마음이 '환경재난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위해 전달할 예정이며, 이 정성과 사랑으로 지구촌은 따뜻하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도림동성당 성소후원회,
지구촌 빈곤 청소년을 위해 성금 기부



평화신문 미주지사, 파키스탄 홍수 피해
성금 전달

지난 12월2일(목), 신도림동성당(주임 최부식 신부) 성소후원회 회원여러분께서 직접 본부를 방문, 현재 지구촌의 빈곤 현실과 지구촌 최악의 환경 참사로 기록된 아이티대지진 이후의 현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성금 200만 원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성금전달에 이어 2011년 1월 29, 30일에 본당 모금 캠페인을 개최해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전 신자가 적극 동참하실 것도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전해주신 성금은 지구촌 빈곤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학교건립, 학용품, 교복, 장학금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평화신문 미주지사에서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모금한 파키스탄 홍수피해 성금 2,475달러를 본부로 전해주셨습니다. 메이플우드 성당, 샌디에고 성당 신자 분들 외에 여러 한인교포 분들께서 모아주신 귀한 마음은 파키스탄 중장기재건사업에 쓰일 계획이며 홍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파키스탄의 이웃들에게 큰 사랑과 응원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7월 사상 최악의 홍수로 인해 전 국토의 5분의 1에 달하는 지역에서 약 2천 1백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피해액만 430억 달러(약 49조원)에 이릅니다.

송파동성당, 100원 모으기 캠페인

지난 12/11(토)~12(일) 양일간 천주교 서울대교구 송파동성당(주임 송영호 신부)에서 '하루 100원 모으기'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틀 동안의 캠페인을 통해 나눔의 아름다움을 생활실천으로 함께 하고자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과 장기기증 운동에 참여해 주신 송파동성당 공동체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 귀한 마음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곳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애 첫 기부



생일을 맞은 아기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이어가는 사랑실천에 감사드리며 소중한 마음이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울 파우스티나	(2009.8.26生 父현준호/母남희은),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최은호 라파엘	(2009.8. 4生 父최창원/母조순연),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이준수 사도요한	(2008.10.11生 父이종혁/母김희선),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이서빈	(2009.10.25生 父이승우/母조영주),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장윤성 다니엘	(2009.8. 7生 父장민욱/母박연호),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안정현 스텔라	(2009.11.20生 父안재우/母김미소),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장은호 레오	(2009.11.16生 父장정국/母윤미경),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이영우 프란치스코	(2008. 5.11生 父이동완/母오정애),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최윤선 비아	(2009.11.25生 父최규영/母박현정),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한지민	(2003.10.25生 父한성근/母김은정),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한시우	(2009. 3.19生 父한성진/母김수지),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생애 첫 기부 문의 02-727-2267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100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절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2010. 12. 1~2011. 1. 31
거리캠페인 2010. 12. 22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세요



지구촌 청소년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학용품, 교복, 장학금을 지원하여

기적을 만드는 사랑의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ARS 060-700-1117

계좌안내 우리은행 1005-684-077777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의 02-727-2267

www.obos.or.kr

보내는 사람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3.9 ~ 2012.3.8
서울중앙우체국
승인4151호

접는선

이 부분은 반으로 접으세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서울시 중구 명동길 62 (구.명동2가 1) 가톨릭회관 413호
tel 02.774.3488 fax 02.776.7879 www.obos.or.kr

1 0 0 - 8 0 9

'산타가
되어주세요'



- 산타가 되는 방법
1단계: 1인 1환아 산타되기 후원금 3만원 입금
2단계: 전국 19개 병원 소아병동 1,400여명의 환아에게 산타선물 전달,
국립암센터에서 투병중인 환아들을 대상으로 산타행사 개최
- 1인 1환아 산타되기 3만원(담요+탁상달력+카드)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27-2293

필수하는 곳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

KONOS

등록번호

나는 이웃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이름(세례명) |

본당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주소 |

장기기증 등록증 발송을 위해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핸드폰 |

기증장기 | ☐ 뇌사시 장기기증

☐ 사후 각막기증

☐ 조직기증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원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장기이식등이식에관한법률” 제13조 3항에 따라 본인은 장기기증의 취지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장기기증 희망지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를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하루 100원 모으기’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 □ □ □ □ □ □ - □ □

이름(세례명) |

본당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주소 |

전화번호 |

핸드폰 |

후원금액 |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기타 (

)원

출금금액 | ☐ 매월 5일

☐ 매월 20일

·출금통장에 ‘한마음한몸’이라 표시되며, 매달 약정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연말 소득용 납입영수증 발급됩니다.

출금은행 |

예금주 |

계좌번호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본인은 자동 계좌이체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을 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지정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은행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명의인 앞 통지여부와 관계없이 약관과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